



제목	Politics, Poetry, and Sufism in Medieval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BRILL
발행일	2013. 11. 1.
저자	Chad G. Lingwood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230
ISBN 또는 ISSN	978-9004254046

내용 요약

『중세 이란의 정치와 시 그리고 수피즘』에서 링우드(Ch. G. Lingwood)는 백양 왕조 또는 아크 코윤루(Aq Qoyunlu)의 지도자 야쿱 술탄(Sultan Ya'qub)의 법정 시와 수피즘의 정치적인 중요성에 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한다. 아크 코윤루는 '흰 양'이라는 의미의 투르크 부족연합을 가리키는 말로서 '검은 양' 연합과 경쟁 관계에 있었고, 1378년부터 1507년까지 아나톨리아의 디야르바키르(Diyarbakir) 지역을 지배했는데, 그들의 통치 지역은 종종 이라크와 이란까지 확장되기도 했다.

이 저서의 근간이 되는 연구는 '살라만 바 압살(Salaman va Absal)' 또는 '아브드 알-라만 자미(Abd al-Rahman Jami, 1414~1492)'와 티무르 왕조의 위대한 지성인 및 나크시 반디 수피(Ya'qub)에게 헌정된 페르시아의 우화와 로맨스이다. 티무르 왕조는 현대의 비평가들이 그로테스크하다고 일축하면서 외면해 버리는 살라만 바 압살을 변호하면서 그에 관한 자신의 저술이 무슬림 통치자에 대한 정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조연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살라만 바 압살의 시작(詩作)이 어떻게, 얼마만큼 티무르 왕조와 백양 왕조의 영역을 통합했는지를 보여 주기 때문에 링우드의 압살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게 이 시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링우드는 중요한 페르시아 작품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연구함으로써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